

우성타이어(주)

제3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우성타이어는 지난 3월 17일 양산본사 강당에서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많은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김동철 사장은 영업보고를 통해 “래디알 사업부문의 연산 700만개 시설규모 확충과 고품질 제품의 유무형 서비스 제공 등을 경쟁력 강화의 근간으로 하는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독자적인 브랜드로서 「다크호스」 출시 및 단기간내 OE 시장 진출 등 실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고 제2창업이라는 의욕적 변신의 포부를 밝혀 주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크라이스러 우성유통에 매각」, 「(주)우성산업에서 우성타이어(주)로의 상호변경」등이 의결되었으며, 신입감사에는 정동호 상무가, 임원으로는 박길린 생산담당이사과 이태호 기술담당이사가 선임되었다.

우성타이어, ESSEN TIRE SHOW 참가

우성타이어는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독일 ESSEN에서 개최되는 TIRE SHOW에 독자 BOOTH를 확보하여 참가했다. 이번 ESSEN SHOW에는 EUROPE팀이 주축이 되어 독일, 프랑스 등 인근 거래선과의 HOSPITALITY 등을 통한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으며, '94년 BUSINESS VOLUME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금년도의 BUSINESS 전망을 밝게 했다. 2년마다 열리는 ESSEN TIRE SHOW는 유럽 지역 최대의 타이어쇼로서, 우성타이어에서 독자 BOOTH를 확보하여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을 비롯, 김종수 해외영업상무, 송덕진 수출1팀장, 조광배 수출2팀장 등 1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하여 ESSEN에서 우성타이어의 위상을 드높였다.

정기조회 열려

우성타이어는 지난 4월

1일 양산본사 강당에서 정기조회를 갖고 2/4분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김동철 사장은 “변화는 자신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간부사원부터 변해야 부하사원이 변하고 회사가 변하는 것이며, 자신의 일에 몰두함으로써 영감(inspiration)이 떠오르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은 특히 총무업무의 변화를 강조하고 “서무적 총무가 아닌 서비스적 총무가 되어야 하며,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분방한 사고를 하되 계획과 실천, 그리고 검토와 통제를 통해 모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성타이어, 해외지점 업무개시

금년에 OPEN한 우성타이어 3개 해외지점의 지사장들이 현지에 부임함으로써 업무를 시작했다. 5월 7일 FRANKFURT지점의 최재곤 과장을 시작으로 5월 13일에는 LOS ANGELES지점의 손건태 차장이 출국했으며, 6월경에는 JEDDAH지점의 이종복 과장이 현지로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 금 호

AUTOMATIC 승용차를 위한
타이어 'AUTO POWER' 탄생

우리 회사는 지난해 'THE XELEX'에 이어 신제품 'AUTO POWER'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AUTO POWER는 소비자의 고품질·고경제성 요구, 취향의 다양화 등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세분화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된 타이어로 '90년대 들어 점차 증가하는 AUTOMATIC 차량에 가장 적합한 타이어로 개발되었다.

그동안 AUTOMATIC 차량은 연료소모가 많고, 순간가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불만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AUTO POWER는 이를 개선, 뛰어난 순간가속력 및 연료소모율이 적은 저연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것이다. 또한 현대감각의 백색 돌출문자를 채택, 외관디자인에서는 독특함을 연출토록 하였고, 반대면은 흑색문자로 디자인, 취향에 따라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UTO POWER는 현재 극심해져 가는 환경문제와 무역장벽화해 가는 G.R. 등

과 관련해 소비자 연료비용 절감과 함께 대기오염을 현재보다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하 사우,
'자랑스런 신한국인'으로 선정

지난해 '전국 제안대회 최우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던 김승하 사우가 '94년도에도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여 광주직할시 기술장을 수상하며 '자랑스런 신한국인'으로 선정되어 지난 4월 26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하였다.

기술장은 광주직할시 관내 제조현장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기능인중 제안실적이 우수하여 공정개선을 통해 생산성향상, 불량률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품질경영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기술장 수상의 특전으로 우리 회사는 품질관리 선도기업으로 특별 육성되며, 김승하 사우에게는 3년동안 매월 기술장려금이 지급된다.

금호 생명과학연구소,
정보통신연구소 기공식 거행

우리 그룹은 지난 3월 5일 광주 과학기술원내에서 과학기술처 장관, 과학기술원 원장, 광주 과학기술원 원장 등 과학기술처 관계자와 각 기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 140억원 규모의 금호생명과학연구소와 정보통신연구소의 기공식을 가졌다.

박성용 그룹 회장은 기념사에서 '금호생명과학연구소 및 정보통신연구소에서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시설과 두뇌의 공동활용,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해 산업체의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룹 차원에서 과학기술원의 연구원과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산업체와 학계의 협동연구 증진을 위해 힘쓸 계획이며, 광주지역 인재양성에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산업재산권 다출원
업계 1위 차지

국내기업중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분야의 권리를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중에서 우리 회사는 29위를 기록하며 업계 1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이 '93년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1백대기업 분석에 따르면 우리회사는 총 339건을 출원했으며, 권리별로는 특허 109건, 실용신안 84건, 의장 110건, 상표 36건 등이다.

한국타이어제조(주)

창립 53주년 기념해
한타문화선포식 가져

올해로 창립 53주년을 맞은 우리회사는 지난 5월 10일 기념식을 겸해 한타문화선포식을 가졌다. 기업이념, 비전, 경영이념, 사훈(사원정신) 등 한타문화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를 재정립하여 마련한 이날의 한타문화 선포식에서 홍건희 사장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반세기 우리 한타역사를 회고하며, 새롭게 정립된 '한타문화'가 조직내부의 힘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정신적 구심점인 독특한 기업문화를 창출하여 인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구·노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담당부서인 한마음운동 전사사무국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전사업장에 한타문화를 알리는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또한 향후 교범 제작 및 관련교육 등을 통하여 한타문화의 전사적인 공유와 확산에 힘쓰고 있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일을 맞아 장기근속상 486명을 비롯하여 모범사원상 64

명, 공로상 2명, 기타 분임조 2팀, 제안 상담부서 등 총 558명에게 개인포상하고 2개분임조 3개부서에 대한 단체포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세계화, 국제화 앞당길
금산공장 기공식 가져

우리회사의 제3공장인 금산공장 기공식이 지난 5월 28일 충청남도 금산 현지에서 있었다.

총 24만 7천여평의 대지위에 연건평 9만 5천평의 규모로 건립될 금산공장에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공사비 약 1조 3천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는 96년 상반기중 생산개시후 2000년대 초반에는 연산 2천 3백만달러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완전자동화 설비로 운영되며, 고성능 첨단타이어의 주력공장으로 '90년 대비 2.5배의 생산성을 지닌 세계 최고수준의 공장으로서 세워진다.

다품종 소량생산을 원칙으로 재고자산관리를 효율화하고, 품질안정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여 세계 BIG 5로의 진입을 위한 주요기

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금산공장은 대기 및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음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실내작업환경의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금산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금산군은 금산의 지역경제 규모가 커지고 직접 및 간접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현재의 농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는 등의 변화를 맞게 된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면은 백글씨,
다른 면은 흑글씨

한국타이어의 「유티모 골드」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고되고 있다.

사이드월 부위의 양쪽면 디자인을 백색과 흑색문자로 각각 다르게 하여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다양해지고 개성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